

정의당도 '부적격' 판정...임명 강행되나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 두고 상당 부분 찬성 의견...정치적 입김 커져 '고배' 법무부장관 이어 조대영 고용노동부장관도 "적합 인사 아냐"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두고 정의당의 정치적 입김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의당은 새 정부 인선에 상당 부분 찬성 의견을 표하며 힘을 실어주면서도, 일부 의혹이 불거진 장관후보자에게는 부적격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의당의 입장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첫 장관후보자는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다. 정의당은 안 전 후보자의 저서에 여성비하 표현이 문제가 되자 "임명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부적격 의사를 전달했다. 각종 논란

에 이어 안 전 후보자가 사퇴하자 "지금까지 밝혀진 논란이 사실이라면 미량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여권의 우군으로 생각되던 정의당이 안 전 후보자에게 등을 돌리자 청와대가 부담을 느낀 것 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과 달리 개혁성이 강한 정의당마저 반대로 돌아서자 임명을 강행하기 쉽지 않 았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후보는 정부 여당이 임명 강행을 주장하기 쉽 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당에

이어 정의당마저 반대하는데 청와대가 임명을 밀어붙이면 여권의 독 단적 행태로 비칠기 때문이다.

정의당의 다음 부적격 대상자는 조대영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될 전망이다. 정의당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노동이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는 적절하지 않다"며 "절박하고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리라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의원이 조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는 노동문제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고용노동부를 이끌 리더십이 있는 준비된 내정자라고 보기 힘들다"며 "국민이 새 정부에 게 기대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을 내세우며 노동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정당이다. 복잡한 노동현안을 풀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세밀한 검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의당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알려졌다.

다만 역시 의혹이 많았던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정의당은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과 방산업체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격 미달"이라며 부적격 의견을 드러냈다. 하지만 송 후보자가 군 개혁의 적임자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태 의원은 2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방개혁이든가 군내 약자들을 보호한다든지 육군의 패권주의를 척결하고 우리 국방이 미래로 나아가는 개혁을 도모하는 데 있어 가장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당론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이견이 나오면서 송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유보적인 모습이다.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송 후보자의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역 후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의혹과 음주운전 사건 무마 시도 의혹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추혜선 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장관후보자에 대해 각각의 문제의식이 있다"며 "당내 의견을 모아 각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준표(왼쪽 세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에서 열린 새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어해 최고위원, 정우택 원내대표, 홍 대표, 이철우, 김태흠 최고위원.

김태흠 "바른정당 통합보단 내부 정리·변화 먼저해야"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4일 바른정당의 통합에 대해 "지금은 우리 당내 내부 정리와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점담에 출연해 "비유를 하자면 우린 집이 거의 무너져 내려가는 상황인데 집 개보수를 먼저 심혈을 기울여야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닌가"라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냐 다 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홍준표 당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불편한 관계가 아니다"라며 "남들은 제가 과거에 친박계 의원이었기 때문에 홍 대표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홍 대표는

저 같은 소신 있고 캐릭터 있는 정치인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저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관심도 많이 줘서 제가 오히려 격정스럽고 부담스럽다"며 "홍 대표는 지금은 당이 하나로 화합해서 가야 할 때라는 인식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친박계 의원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언론이 안 썼으면 좋겠다"며 "과거 친박계라는 사람들의 내용의 결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어떻든 간에 지금은 계파가 있으려면 수장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며 "수장도 없는 계파가 어딴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靑 "내각 구성 협조한다는 홍준표, 감사"

진병현 청와대 정부수석은 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가 추경, 인사청문회 등에 대해 협조 입장을 내비쳤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인터뷰에서 홍 대표가 말하신 대로 비상한 상황에서 출발한 정부이니 만큼 내각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조를 해야 한다"며 "저로서 정부수석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포괄적으로 내각 구성의 문제와 일치적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업 문제를 국민들이 좀 더 세금을 갖고 일자리

를 만드는 추경이니 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말했다.

진 수석은 특히 "인사청문회는 내각 구성에 협조를 해야 한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원천적으로 막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홍 대표가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추경 문제도 현재 일단 비상한 상황에서 출발한 정부이니 만큼 내각 구성 문제나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으로 내각 구성의 문제와 일치적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업 문제를 국민들이 좀 더 세금을 갖고 일자리



추경안방향 밝히는 국민의당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홍 간사가 국민의당 대안 추경안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강화, 기금, A대책, 세월호 유류 피해 등 민생현안 관련 재정 확대 등을 밝히며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과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文정부 레임덕, 김상곤 임명에서 시작될지도"

"국민의당, 김상곤 광주 출신이라 통과시켰나"

바른정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결과보고서 강행 처리를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

민의당을 향해 "김 후보자가 광주 출신이어서 이 분만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며 "국민의당도 야당으로서 위치를 분명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3중세트'라며 절대 안 된다고 얘기 했었다"며 "그런데 어제 왜 태도가 바뀌었는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매우 이렇다"고 말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김 후보자는 도덕성, 자질, 사상, 능력 등 모

든 면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절대 부적격자"라며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결과보고서 채택이 날치기 강행처리 된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김상곤 후보자 임명에서 시작될 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새겨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명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윤호 기자



사람중심·생명중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

